



“난감하네” 이기흥 IOC위원 임기 연장 무산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 IOC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그리스에서 열리는 제144차 IOC 총회에 제출할 임기 연장 위원 명단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1999년 12월 이전에 선출된 IOC 위원은 80세, 그 이후에 선출된 위원은 70세가 정년이다.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뽑힌 이 회장은 임기 4년을 연장해주는 예외 규정 신청을 노렸다.

그러나 이번에 IOC가 발표한 임기 연장 후보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임기 연장 후보는 11명이다. 개인 자격 위원이 9

명이며, 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 자격 위원이 2명이다.

IOC 위원은 이 회장과 같은 NOC 자격, IF 자격, 개인 자격 위원으로 나뉜다.

리히텐슈타인의 노라 공주(1950년생), 세르비아의 앙드레(1949년생),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스페인·1959년생) 등 10명은 2017년 IOC 위원으로 선출돼 내년 8월 임기가 끝나는 인물들이며, 스페인 카르탈로스(그리스·1955년생)는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2019년에 선출돼 내년 정년에 도달한다.

이 회장은 카르탈로스 위원처럼 ‘4년 임기 연장’을 노렸으나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1955년생인 이 회장은 내년 1월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IOC가 다음에 임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NOC 대표 자격으로 유지했던 IOC 위원 지위를 지킬 수 있다.

이 회장은 체육계 안팎의 거센 반대에도 ‘한국인 IOC 위원 지위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체육회장 3선 도전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번에 IOC 임기 연장이 무산되면서 이 회장의 3선 도전 명분도 힘을 잃게 됐다.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평가 지표 중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과 계획 및 가능성’을 포함한 정성 평가

항목에서 이 회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체육계에서는 이번 IOC 집행위원회 발표에서 개인 자격의 한국인 신규 위원 후보가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었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이 회장의 임기가 내년에 끝난다면, 2026년 이후 한국인 IOC 위원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자격의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만 남는다.

한편 내년 3월 IOC 그리스 총회에서는 새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열린다.

2013년 9월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위원장에 선출됐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내년 6월을 끝으로 퇴임한다.

/연합뉴스

“IOC 위원 지위 지켜야”
체육회장 3선 도전 명분 잃어

‘올림픽 금빛 발차기’ 박태준, 세계태권도연맹 ‘베스트 킥’

16강전 후려차기로 수상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독창적인 고난도 발차기를 선보이고 금메달까지 목에 건 박태준(경희대)이 세계태권도연맹(WT) ‘올해의 베스트 킥’ 상을 받았다. 박태준은 4일 홍콩의 빅토리아 하버크루즈에서 열린 ‘WT 2024 갈라 어워즈’에서 베스트 킥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파리 올림픽 남자 58kg급 16강전에서 보여준 발차기 기술이 박태준을 수상으로 이끌었다.

당시 박태준은 베네수엘라의 요한드리 그라나도를 맞아 상대의 공격을 뒤차기로 반격한 뒤 곧바로 반대쪽 발로 빠르게 뒤후려차기를 구사하는 고난도 기술을 펼쳐 보였다.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널리 퍼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박태준은 올림픽에서 16강부터 결승까지 저돌적인 공격을 펼치며 한국 남자 태권도 선수로는 16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WT 갈라 어워즈는 매년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선수, 코치, 심판 등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는 특히 태권도가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 의미를 더했다.

올해의 최우수 남녀 선수에는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2024 파리 대회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남자 68kg급 율루그백 라시토프(우즈베키스탄)와 올림픽 데뷔 무대에서 우수한 여자 67kg급의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 태권도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16강전에 출전한 한국 박태준이 베네수엘라의 요한드리 그라나도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18세 비비아나 마톤(헝가리)이 뽑혔다. 브라지안·K44 70kg급)와 레오노르 양헬리카 에스피노사 카란사(페루·K44 47kg급)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복싱 메카’ 화순서 전국실업복싱대회 개최

임애지 복싱체육관서 7~9일

화순에서 제12회 한국실업복싱협회장배 전국실업복싱대회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화순 임애지 복싱체육관(전 하나음 복싱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복싱협회가 주최하고, 화순군복싱협회가 주관하며 전국 14개 실업부 남·녀 총 60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특히 전남에서는 화순이 ‘복싱 메카’로 자리잡는 데 기여한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임애지와 제105회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 박종용 등 화순군청 선수단이 나서 실력을 겨룬다.

화순군청 박구 감독은 “이번 대회가 화순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됐는데, 이에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보여준 활약이 큰 역할을 해 뿌듯하다”며 “이번에도 좋은 성적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참가 체급은 남자부 10체급(-49kg, -52kg, -56kg, -60kg, -64kg, -69kg, -75kg, -81kg, -91kg, +91kg), 여자부 5체급(-51kg, -57kg, -60kg, -69kg, -75kg)으로 구분된다. 대진표 추첨은 대회 하루 전인 6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7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체력량,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

전국 마라토너들, 영암 F1 서킷서 질주

8일 국제자동차경주장서 개최

전국 마라토너들이 F1 경주장 서킷 위를 달린다.

“2024 영암 전국 마라톤대회”가 오는 8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레이싱 트랙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하프코스(2LAP·21.0975km), 단축코스(1LAP·10.55km), 5km로 나눠 진행되며, 3000여명이 출전한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9시 집결 후 10시부터 경주장 메인스탠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한다.

건장 달리기를 목적으로 한 5km은 F1 경주장 한 바퀴를, 하프코스와 단축코스는 반환점인 삼포교

차로를 기점으로 각각 2바퀴와 1바퀴를 도는 코스로 진행된다.

코스별 1~5위까지 시상금이 차등 지급되며, 6~20위에게는 영암 특산물 달마차씨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최다 참가단체 1~5위에는 추가로 특별상이 수여된다.

기념품으로는 영암사랑 상품권 1만원(하프·10km), 농촌사랑상품권 5000원(5km)과 기념 티, 배번호, 기록첩(하프·10km), 완주메달, 간식과 핫팩이 주어진다.

행사장에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와 푸드트럭 존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한국 경마 102년 유리천장 깬다”...여성 그랑프리 첫 우승

부경 소속 김혜선 기수
섬세함과 부드러움 장점

한국 경마 역사에서 첫 여성 그랑프리 우승자가 탄생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경)은 지난 1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42회 그랑프리에서 부경소속 경주마 글로벌히트(4세 수말·방동석 조교사·김준현 마주)로 김혜선 기수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1922년 한국경마가 시작한 지 102년 만에 여성 기수가 그랑프리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처음이다.

그랑프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국 경마의 결산 무대로 서울과 부산·경남의 최정에 경주마 16두가 출전한다.

여성기수는 남성기수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지만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물을 좋아해 기수가 된 김혜선 기수는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유에 대해 경주마와의 교감을 꼽았다.

김 기수는 “글로벌히트는 거칠게 다그치기보다 섬세하게 달래줬을 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다”며 “승리욕이 강해 초반에 힘을 쓰면 나중에 걸음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랑프리대회에서 우승한 글로벌 히트는 다음 달 김혜선 기수와 세계 최고 경주 가운데 하나인 두바이컵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60개월 연속 1위’ 신진서, 역대 최장기간 신기록

한국 바둑의 간판 신진서(사진) 9단이 역대 최장기간 랭킹 1위를 지켰다.

신진서는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12월 랭킹에서 1만379점을 획득해 박정환(9938점) 9단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지켰다. 이로써 신진서는 2020년 1월부터 60개월 연속 1위를 지키며 역대 최장기간 1위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최장기간 바둑랭킹 1위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월 동안 정상을 지킨 박정환이다.

12월 랭킹에서 2위 박정환에 441점을 앞선 신진서는 내년 랭킹에서도 최장기간 1위 기록을 이어갈 전망이다.

통산 랭킹 1위 횟수는 신진서가 68회로, 74회 1위를 차지한 박정환을 추격했다.

신진서는 지난 11월 세계대회인 난양배와 삼성화재배에서 6승 1패를 기록했다.

12월 랭킹에서 3~5위는 변상일·신민준·김명훈 9단이 자리를 지켰다.

원성진·강동운·안성준 9단이 6~8위에 올랐고 김지석·설현준 9단은 공동 9위에 랭크됐다.

여자랭킹에서는 전체 31위인 최정 9단이 4개월 연속 1위에 올랐다. 하지만 2위 김은지(전체 33위) 9단이 최정을 6점 차로 바짝 쫓았다.

여자랭킹 3위 오유진 9단은 전체 84위, 4위 김채영 9단은 전체 96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4-12-01(일) ~ 2024-12-22(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12.13.(금) 오후 7시 특별공연 (송년의 밤)
*12.20.(금) 오후 7시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